

고전소설을 활용한 감성교육

- 다양한 '사랑'이라는 감정의 간접 경험

윤정안*

<차례>

1. 들어가며
2. 고전소설의 도구적 활용과 감성(사랑) 교육
3. 고전소설을 활용한 감성교육의 실제 사례
4.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대학의 교양수업에서 고전소설을 활용하여 '사랑'이라는 감성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전소설은 고어, 한문 등의 진입장벽, '재미가 없다'는 고정관념, 시대의 차이로 인한 다른 문화적 관습 때문에 현대의 독자들이 향유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 이 글은 대학의 교양수업에서 고전소설을 도구적으로 다루는 것을 제안하였다. 고전소설을 도구적으로 다루는 것은 고전소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고전소설을 자유롭게 읽고 '오독'하여 어떤 사고의 장을 열어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것은 고전소설을 재미의 차원에서 소비하도록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양수업이 지식의 전달이라기보다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고전소설을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이 고전소설에 흥미를 가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고전소설을 도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번역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입을 동기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글은 학생들에게 교양수업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고전소설을 읽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업은 고전소설을 '사랑'이라는 감정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는 에

*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육부 객원교수

리히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에 기초한다. 즉, 사랑은 배우고 익히는 대상으로, 고전소설을 통해 20대 학생들에게 사랑을 간접 체험하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수자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둘러싼 사건’, ‘사랑과 ‘일탈’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조를 이루어 발표를 하고 개인 과제를 내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성의 대상이나 대상 작품을 달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고전소설, 교양수업, 감성교육, 사랑, 도구적 활용, 재미

1. 들어가며

학령인구의 감소, 지방의 소멸 등 다양한 이유들이 증첩되면서 대학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고, 이는 곧 대학의 위기를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학은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인문대와 같이 인기가 없는 학과들을 없애거나 여러 학과들을 통폐합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혹은 인기가 없는 국어국문학과라는 이름을 그럴듯한 이름으로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와 같은 이름이 호출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전세계에 불어온 한국어 열풍으로 수요가 생긴 ‘한국어교육’이라는 이름을 학과의 이름에 붙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생각된다. 순수학문으로서 국어국문학은 대학이라는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데, 점차 응용학문으로만 남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학문 연구와 교육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K’로 대표되는 한국의 무엇인가가 전세계적인 것이 되는 시대에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것 중 하나는 한국어였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니, 국어국문학과

에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온 외국인들로 가득했다. 이러한 관심은 이제 어학을 넘어서 고전소설 방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고전소설을 전공하는 외국인을 보는 것도 이제는 특이하고 어색한 일은 아니다. 외국인의 이름이 분명한 고전소설 석박사 논문을 보는 일도 일상이 되었다.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비교는 이들에 의해 그 수준의 여하를 떠나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덕분에 우리의 고전소설이 외국에 알려지고 있으며, 외국에서 우리의 고전소설을 연구하는 일도 이제 한두 군데 해외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만이 아니게 되었다.

반면, 대학원에서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고전소설 전공자를 만나는 일은 어떠한가? 'K-컬처'의 영향에 힘입어 점차 한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민족의 유산인 고전소설을 공부하는 연구자는 증가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고전소설을 전공하려는 연구자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고전소설의 연구자가 줄어들다는 것은 곧 대학에서 고전소설을 가르칠 사람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고전소설은 전공 이외의 교양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은데, 교수자 자체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셈이다. 대학은 점점 소멸하고 살아남은 대학에서도 국어국문학과가 사라지고 있으며 고전소설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극단적이고 비관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고전소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학문이 되어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전소설을 국어국문학과와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그 영토를 더욱 확장하여 수용자와 향유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보통의 경우 대학생이 되기 이전 고전소설을 수용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어린 시절 전래동화를 읽었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전래동화는 어린아이나 읽는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고, 작품의 수준을 어린아이

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는 유치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¹⁾ 더구나 ‘교훈’의 전달이라는 목표 아래 어린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전래 동화는 도식적이고 단순해서 고전소설 교유의 맛을 느끼게 해주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고전소설 교육은 재미가 없다. 학생들은 12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춘향전>이나 <홍길동전>과 같은 대표적인 고전소설 작품들을 배운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오지선다 문항과 단답형 등의 ‘평가에 긴박되어 있어 재미를 느끼는 데 한계가 있다. 학교에서의 고전소설 교육은 감상보다는 주로 지식의 차원에서 다뤄지므로 결국 ‘암기’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니 암기를 위해 억지로 읽어야 했던 고전소설 작품을 대학에 와서 굳이 찾아 읽을 리가 없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고전소설이 수용되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국어국문학과와 전공이 아닌 교양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이러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로 전공 영역에서 고전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²⁾ 교양의

1) 신재홍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듣거나 읽은 고전소설의 즐거움은 매우 익숙한 옛이야기가 되어 있다. 원래는 낯선 것인데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익숙한 것이 되어 버린 이야기이므로 어느 정도 주체적인 독서 능력이 길러진 단계에서 고전소설을 다시 접하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 되기 쉽다.”(신재홍, 「고전소설의 재미 찾기」, 『고전문학과 교육』 2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42쪽.)라고 설명하였다.

2) 이상익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여기서는 이상익이 고전문학을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전문학 여러 영역의 개별 작품들에 대한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고전연구학회에서는 2007년 고전문학의 각 분야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를 특집으로 다룬 바 있다. 다음의 논문들이 이에 해당한다.

권순경,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향과 방법」,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7~58쪽; 신동훈,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신화의 콘텐츠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59~87쪽; 정병현,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영역에서 고전문학 자체 혹은 고전문학의 여러 영역에 대한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³⁾ 물론 이 가운데는 교양 영역에서 고전소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졌다.⁴⁾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교양 영역의 고전소설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교양의 영역에서 왜 고전소설이 유효한 것인가를 논증한 후 어떻게 고전소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보기 어렵다. 논의는 대체로 일종의 ‘작품론’처럼 서술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나 그 결과 혹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보였던 교양수업의 목적과 특징, 그리고 그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전소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논의를 심화시켜 보려고 한다. 우선 ‘감성 교육’의 일환인 사랑이 왜 고전소설을 통해 다뤄질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효과나 의의도 거론하게 될 것이다. 이후 구체적인 수업의 목적과 방법, 과정 등을 서술함으로

5~26쪽; 최규수, 「대학생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의 몇 가지 키워드」,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89~114쪽.

- 3)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30쪽; 최윤희,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한국 고전 문학과 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 『어문학교육』 44, 한국어문교육학회, 2012, 31~50쪽; 황인순, 김보현, 「대학 교양국어교육의 고전문학 텍스트 활용 연구 -비평적 글쓰기를 위한 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31~54쪽; 박경주, 「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그 방향성 모색」, 『고전문학 교과교육』 4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5~37쪽.
- 4)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83~121쪽;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5~82쪽; 정선희(A),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의 - 고전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97~426쪽.

써 고전소설을 교양수업에서 다룰 때 다른 (연구자가 아닌) 교수자에게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 고전소설의 도구적 활용과 감성(사랑) 교육

교양수업으로서 고전소설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다. 전공으로서 고전소설을 공부한다면 학생들은 작품이나 작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독해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어국문학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양수업에서 이러한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은 큰 의미를 발휘하기 어렵다. 전공에서와 같은 지식의 전달은 교양수업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달리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본은 너무나도 낯선 개념이고, 원전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한글 고어나 한문을 해석하는 훈련은 단기간에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대소설, 특히 근래의 소설들은 책을 펼치면 읽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고전소설은 읽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다. 더구나 조선시대의 문화는 지금과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 이것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각설’과 같은 고전소설의 문학적 관습 역시 현대의 독자들이 고전소설을 향유하는 데 방해요소가 된다.

이전의 논의들 역시 교양교육의 특성에 비춰서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양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장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혜안을 위한 것”⁵⁾이며, “특정 지식을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나아가 비판할 수

5) 김종철(2010), 앞의 논문, 9~10쪽.

있는 지적 능력의 함양⁶⁾이므로 고전소설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에서는 “국문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국문학 관련 지식을 넓히는 교육일 필요도 없⁷⁾”고, “고전이 현재적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고민하기 위한 ‘지름길’을 알려주는 텍스트로 이해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교양교육에서 고전소설은 도구⁹⁾여도 괜찮을 것이다. 고전소설을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고전소설을 경유하여 어떤 사고의 장을 열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고, 고전소설을 통해 어떤 사고의 방향 혹은 통로를 열어주거나 편폭을 넓혀줄 수 있다면 도구적이라도 작품을 읽는 의미는 있을 것이다.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오독’을 통해 자유롭게 작품을 읽고 이해하며 스스로 작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과 그의 해결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양수업의 목표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¹⁰⁾

6) 조현우(2010), 앞의 논문, 60쪽.

7) 김종철(2010), 앞의 논문, 12쪽.

8) 조현우(2010), 앞의 논문, 61쪽.

9) 조현우는 이에 대해 ‘교재’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위의 논문, 65쪽). 교양수업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재료로써 고전소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전소설은 ‘교재’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좀 더 고전소설이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도구’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10) 학생들이 고전소설에 대해서 오독을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방기하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작품을 자유롭게 읽고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작품에 대한 정보는 국어국문학과와 전공수업에서처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혹시 학생들이 발표를 통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교수자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발표의 과정에는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배치해 두기도 했고, 잘못된 정보를 발표에 포함시킨다면 발표 이후 교수자가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학계에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고전소설을 도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재미’의 차원에서 고전소설을 소비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양교육의 수강생들이 고전이 재미있고 좋아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¹¹⁾한데, 이를 위해 고전소설의 재미있는 국면을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고전소설로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 역시 고전문학 혹은 고전소설을 교양수업에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던 것이 ‘재미’이다.¹²⁾ 무엇보다도 작품을 읽어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 무엇을 가지고 사고를 하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전소설은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며, 대중들이 갖고 있는 고전소설에 대한 이미지 역시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기에 고전소설을 읽게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고전소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전소설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재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고전소설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나마 작품을 읽고 작품의 맛을 알게 된다면 혹여 학생들이 연구자로서, 교수자로서 느꼈던 작품의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古典小說이라는 말에서 古典을 떼고 小說에 주목하여 “작품들을 ‘이야기’ 자체로 접근하도록 하는 일”¹³⁾에 집중해야 한다

11) 조현우(2010), 앞의 논문, 79쪽.

12) 김태웅은 “고전문학을 극도로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우선 흥미요소를 충족시켜야 고전문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김태웅,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을 통한 고전문학교육 연구」, 『문화와 융합』 44,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418쪽.)라고 지적하였고, 신재홍은 “고전문학을 현대의 독자와 학습자에게 가까이 접하게 하려면 그것에서 맛보는 재미는 무엇이며 그 재미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신재홍, 앞의 논문, 33쪽.)라고 하였다. 정선희 역시 “학생들이 고전소설을 좋아하게 하려면, 그들이 흥미를 느끼고 주목하는 부분을 잘 알고 그 부분을 자극해야 할 것이다.”(정선희(B), 「고전소설의 교육과 수용 -문화적 위상의 정립을 위하여」,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143쪽.)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비전공자가 고전문학 혹은 고전소설로의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재미’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고전소설을 도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굳이 원문으로 읽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¹⁴⁾ 원문으로 고전소설을 읽는 것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일로,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학부생 수준에서도 고전소설을 원문 그대로 읽는 것은 맛을 보는 정도일 뿐이다. 원숙한 원문 해독 능력은 대학원 과정에서나 가능하다. 고전소설을 원문으로 읽기 위해서는 오랜 숙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럴 여유가 없는 교양수업에서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본을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행히 요즘은 많은 번역서들이 나와 있고, 현대어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도 다듬어져 있는 상태이며, 어려운 용어나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에 대해서는 주석이 달려 있기도 하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한국고전문학전집”이 이러한 예에 해당할 것이다. 교양수업에서 이런 고전소설의 번역본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¹⁵⁾

다른 하나는 고전소설을 읽을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전소설에 재미를 느끼지 못했더라도 읽어야 하는 동기가 있다면 읽어야만 하기에 우선은 학생들에게 접근을 시킬 수 있다. 교양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13) 조현우(2010), 앞의 논문, 63쪽.

14) 신재홍 역시 “꼭 원문을 정확히 해독해야 이러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이해 수준에서 재미있는 곳을 만나 감흥을 얻으면 될 것”(신재홍(2013), 앞의 논문, 46쪽.)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원문의 강요가 고전소설을 읽는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원문의 해독을 강요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다.

15) 현재 문학동네에서 나온 한국고전문학전집 가운데 소설로는 『숙향전·숙영낭자전』, 『홍길동전·전우치전』, 『홍보전·홍보가·옹고집전』, 『창선감의록』, 『박태보전』, 『조선전기 우언소설』, 『구운몽』, 『사씨남정기』, 『소현성록』, 『홍계월전』, 『방한림전』, 『박씨전·금방울전』, 『주생전·운영전·최척전·상사동기』 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작품들이 현대어로 번역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고전소설을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 또한 고전소설 연구자로서의 중요한 소임일 것이다.

읽지 않고, 다만 내용을 요약해서 듣는 것으로도, 일부를 보는 것만으로 가능한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장편가문소설 등 분량이 많은 경우라면 그 작품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읽고 수업에 참여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다. 이때 주제론적 접근은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특정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작품을 읽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고전소설의 재미나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다.¹⁶⁾

이렇게 교양수업에서 도구적으로 고전소설을 활용하여 강의하는 방법 가운데 이 글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성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철학이 사상을, 역사가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문학은 이들과 달리 허구를 기반으로 인간의 감정을 묘사하고 다룬다. 그러므로 고전소설은 사상의 정확성이나 사실의 고증이라는 책임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감정의 흐름을 탐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감정이며, 특히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는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¹⁷⁾ 누군가와 사랑을 하는 학생도 있고, 다가올 사랑을 기대하는 학생도 있으며, 깨어진 사랑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사랑은 수강생들의 현재진행형이자 큰 관심사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랑에 대하여 관심은 많지만 대부분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부족한 경험은 간접 경험을 통해 채우

16) 이런 과정에서 고전소설을 창조적으로 오독하여 새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 가령, 최동훈 감독의 2009년작 <전우치>는 전우치 이야기를 기초에 두고 『삼국유사』 소재의 만화식적 이야기, 사금갑 설화 등을 버무린 후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서사를 펼쳐지면서 고전소설 <전우치>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영화의 원류는 고전소설이되, 그것은 다른 이야기들과 합쳐지고 새로운 설정이 더해지면서 창조적으로 오독되었다. 그 덕분에 600만이 넘는 관객을 극장으로 모았다.

17) 신재홍 역시 “오늘의 상황에 집중하는 독자에게도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보편성의 흐름 같은 것을 이해한다면 재미를 맛보게 될 것”(신재홍(2013), 앞의 논문, 44쪽.)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보편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다.

게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경험, TV나 영화 등에 나오는 수많은 사랑과 연애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리고 문학 작품 역시 사랑에 대한 간접 경험이자 생각할 거리를 전해준다.

고전소설은 천편일률적이고 틀에 박혀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고전소설의 주제는 모두 ‘권선징악’이라는 편견이 그것이다. 그래서 고전소설 속의 사랑도 거기서 거기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전소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모습이 제각각이다. 정출현은 “반복의 안도감과 ‘변주의 새로움’”¹⁸⁾이라는 말로 고전소설의 다양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랑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이다. 재자가인의 만남으로만은 고전소설 속의 사랑이 요약되지는 않는다. 큰 틀에서는 몇 가지 모습으로 분류될지도 모르지만, 각각의 작품마다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에 아파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재회하여 행복을 누리는 모습 또한 각기 다르게 표상되어 있다. 꼭 남녀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심청전>과 같은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을, <홍부전>과 같은 형제 사이의 우애를 다루고 있기도 하다. <북상기>와 같은 작품은 환갑의 낙안선생과 18살 기생 순옥이 벌이는 파격적인 애정 행각이 펼쳐지고 있으며, 소위 세태소설로 분류되는 <배비장전>이나 <이충훈전>, <종옥전>과 같은 작품들은 기생에게 눈이 멀어 망신당하는 양반 남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처럼 고전소설의 사랑 이야기는 각각양색이다.

물론 고전소설 속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현재의 상황과 명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다. <방한림전>을 동성애를 다룬 작품으로 소개¹⁹⁾하기도 했지만,

18) 정출현,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 -전기소설 『금오신화』와 『오유란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2006, 35쪽.

19)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쪽; 박길희,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과 자기(知己) 그리고 입양에 담긴 의미와 그 위협성」, 『배달말』 61, 배달말학회, 2017, 247~274쪽; 최지너,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同性婚)의 양상과 의미 -〈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1, 국문학회, 2020, 29~57쪽; 이상일, 「문학교육 제재로서 〈방한림전〉의 가치와 한계 -젠더 일탈과 동성혼 화

방관주와 영혜빙의 혼인에는 단순한 동성 결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저항의 의미 또한 염두에 두어야 제대로 된 독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양수업에서 〈방한립전〉을 다루면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동성애라는 소수자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재료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학생들은 〈방한립전〉을 통해 현대사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인 동성애에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방한립전〉의 독특한 설정을 통해 고전소설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방한립전〉, 더 나아가 고전소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전소설을 도구로써 활용하여 사랑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나면, 그것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거나 근현대의 소설 혹은 영화 등의 서사체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고전소설과 현재와의 연계성을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지금까지 연구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시점으로 사랑 이야기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²⁰⁾

이처럼 현재의 어떤 상황과 고전소설의 접점을 만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고전소설은 다만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의미가 있는 무엇이 될 터이니 고전소설에 흥미를 갖고 자신의 전공에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이라는 감성을 교양교육에서 고전소설을 활용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 그 수업계획을 자세히

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1, 45~77쪽.

20) 박경주는 “학부 학습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고전 작품을 창의적으로 변용시킨 텍스트와의 비교를 통해 오히려 고전 작품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면서 개성적 분석에 이르는 경우를 자주 발견한다.”(박경주(2020), 앞의 논문, 24쪽.)고 언급한 바 있다. 어쩌면 학생들의 눈이 연구자나 교수자의 눈보다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고전소설을 더 잘 연결시킬지도 모른다. 연구자가 작품에 대한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 반해 학생들이 작품에 대해 배우지 않은 것이 오히려 ‘창조적인 오독’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살펴보겠다.

3. 고전소설을 활용한 감성교육의 실제 사례

이 글에서 다루는 강의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양수업으로 개설된 ‘한국고전문학과 사랑’ 수업의 계획과 실제 사례이다. 수업명은 한국의 고전문학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대상을 고전소설로 한정하였다.

그렇다면 사랑은 ‘교육’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통해 제시해 보려고 한다. 프롬은 “저마다의 개인적인 사랑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이는, 그리고 진정한 겸손과 용기, 신념과 철저한 훈련이 없이는 성취할 없다.”²¹⁾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책의 제목에서 ‘기술’은 ‘art’로, 사랑(Loving)은 배우는 것이자 익히는 것이며,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직접 하면서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무엇이 된다. 또한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랑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사랑에서 더욱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고전소설을 통해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역시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프롬은 사랑의 대상을 형제애, 모성애, 육체적인 사랑, 자기에, 신에 대한 사랑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업에서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20대 초중반이라는 점에서 남녀의 사랑에 초점을 두었다. 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남녀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테마를 정하여 학생들이 고전소설을 통해 사랑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식으

21) 에리히 프롬 지음, 정성호 옮김, 『사랑의 기술』, 범우, 2015, 9쪽.

로 수업을 조직하였다. 주차별 수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주	수업내용	수업방법
1	수업 소개	강의
2	1. 사랑이란 무엇인가? - 사랑에 대한 이론	강의, 토론
3	1. 사랑이란 무엇인가? - 이데올로기와 사랑 : 〈춘향전〉, 〈심청전〉	강의, 토론
4	1. 사랑이란 무엇인가? - 성(性)과 사랑 : 〈종옥전〉, 성과 관련된 소화(笑話)들	강의, 토론
5	1.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과 조건 : 〈도미처〉, 〈온달〉	강의, 토론
6	2. 사랑을 둘러싼 사건들 - 이상적인 남녀의 만남 : 〈만복사저포기〉, 〈홍백화전〉	강의, 조별 발표, 토론
7	2. 사랑을 둘러싼 사건들 - 죽음을 넘어선 사랑 : 〈수삽석남〉, 〈김현감호〉	강의, 조별 발표, 토론
8	2. 사랑을 둘러싼 사건들 - 이별과 재회 : 〈이생규장전〉, 〈최척전〉	강의, 조별 발표, 토론
9	2. 사랑을 둘러싼 사건들 - 사랑과 의심 : 〈안생전〉, 〈춘향전〉의 남성들	강의, 조별 발표, 토론
10	2. 사랑을 둘러싼 사건들 - 무책임한 사랑 : 〈심생전〉과 야담 속 이야기	강의, 조별 발표, 토론
11	3. 사랑과 '일탈' - 삼각관계 : 〈주생전〉, 〈운영전〉	강의, 조별 발표, 토론
12	보강주간	
13	3. 사랑과 '일탈' - 불륜 혹은 로맨스 : 〈절화기담〉, 〈포의교집〉	강의, 조별 발표, 토론
14	3. 사랑과 '일탈' - 동성애 : 조선왕조실록, 〈방한림전〉	강의, 조별 발표, 토론
15	3. 사랑과 '일탈' - 다자연애 : 〈구운몽〉, 〈소현성록〉	강의, 조별 발표, 토론
16	기말고사	시험
〈한국고전문학과 사랑 주차별 수업계획서〉		

앞서 설명한 프롬의 이론은 2주차에 실시하였고, 3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랑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고전소설 작품에

빛대어 설명하였다. 작품은 가급적 학생들이 읽어올 수 있도록 분량이 많지 않은 작품을 선택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강의와 별개로 조별 발표를 6주차부터 시작하여 교수자의 강의 이외에 학생들이 스스로 작품을 정하여 조에서 정한 시선으로 고전소설 속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였다. 이를 통해 직접 사랑에 대해 사유할 뿐 아니라,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 개별 과제도 부여하여 외국작품을 포함하여 20세기 이후 발표된 문학작품과 고전소설 속의 사랑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먼저 강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강의의 시작은 수업에서 다룰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부터 시작하였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어 그것이 수업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하였다.

전체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서 진행하였다. 첫 부분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주차에서는 〈춘향전〉이나 〈심청전〉을 통해서 그것이 유교적 이데올로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녀의 진정한 사랑 혹은 의지할 곳 없었던 부녀의 애절한 사랑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던짐으로써 학생들이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4주차에서 〈종옥전〉이나 성(性)과 관련된 사회들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육체적인 것, 성적인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사랑은 대체로 육체적인 접촉과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어야 하는가를 특히 〈종옥전〉을 통해 토론하였다.

5주차에서는 사랑과 조건이라는 오래된 주제를 〈도미처〉와 〈온달〉을 통해 들여다보았다. 〈도미처〉에서 개루왕의 권력을 거부하고 눈이 먼 남편을 선택한 도미처, 그리고 〈온달〉에서 남편으로 ‘바보’를 선택한 평강공주의 행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 이러한 혼인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보았다. 또한 〈온달〉의 혼인이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정략결혼(조건)도 아닌 형태의 것인데, 이를 통해 결혼과 사랑이라는 제도 혹은 감정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6주에서 10주차까지는 사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다루었다. 6주차의 내용은 운명적인 사랑에 대해 다루었다. 나에게 딱 맞는 운명의 연인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환상 가운데 하나이다. 첫눈에 반해 사랑을 키워나가는 〈이생규장전〉과 〈홍백화전〉의 내용을 통해 이상적인 연애의 환상이 어떤 것들인지, 혹시 나의 운명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이 현실에서는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7주차에서는 죽음을 넘어선 사랑에 대해서 다루었다. 죽어서도 사랑을 이룬 〈수삽석남〉의 최항,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는 김현을 지켜낸 〈김현감호〉의 호녀가 그 주인공들이다. 사랑은 과연 죽음조차 넘어설 수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 나는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가? 사랑이라면 떠오르는, 특히 20대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한 번쯤 다뤄볼 만한 내용이었다.

8주차에서 10주차까지는 달콤한 사랑이 아닌 쓰디쓴 사랑의 장면들을 다루었다. 사랑은 언제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별, 의심, 무책임 등은 사랑을 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이생규장전〉과 〈최척전〉은 원하지 않은 이별로 고통받는 부부가 등장하는데, 이를 통로로 삼아 이별의 상황, 분류, 의미 등에 대해 토론해 보았다. 〈춘향전〉은 흔히 이도령과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 혹은 신분을 넘어선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사가 된 이도령을 통해 사랑에서 의심이 갖는 의미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안생전〉의 안생이 무심코 던진 의심의 말이 아내를 자살로 몰고 가는 과정은 사랑에서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심생전〉의 심생이 보여준 무책임 역시 사랑의 파국을 자초한다. 이러한 사랑의 부정적인 맥락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고 학생들과 토론하였다.

세 번째는 11주에서 15주까지 사랑과 ‘일탈’이라는 대주제로 각기 삼각관계, 불륜, 동성애, 다자연애의 관점에서 고전소설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들 주제는 아름다운 사랑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놓이며, 대체로 비난받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일 것이다.

〈주생전〉과 〈운영전〉에서는 삼각관계를,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에서는 불륜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작품에서 삼각관계와 불륜의 양상은 다르다. 〈주생전〉이 주생의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배도와 선화 사이를 오고 가며 사건을 만든다면, 〈운영전〉에서는 자유를 꿈꾸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외에 운영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끝내 말할 수 없었던 안평대군 세 사람의 엇갈린 삼각관계가 그려진다. 안평대군은 두 남녀의 사랑을 방해하는 역할을 맡으면서도 운영에 대한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주생전〉의 주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절화기담〉의 불륜이 두 남녀의 욕정이 아슬아슬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서사를 진행한다면, 〈포의교집〉의 불륜은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인해 고통받는 초옥이 뒤늦게, 비록 착각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포의교집〉의 불륜은 안타까운 정서를 느낄 수 있으며, 〈절화기담〉의 불륜과는 구별된다. 이처럼 〈주생전〉과 〈운영전〉의 삼각관계, 그리고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의 불륜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삼각관계나 불륜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방한립전〉을 동성애의 시각으로 보거나 〈구운몽〉을 다자연애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동성애나 다자연애를 다루기 위해 도구적으로 고전소설을 활용하였다. 다자연애의 경우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것이 논란이

된 것은 1990년대부터라고 한다.²²⁾ 즉, 고전소설에 다자연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구운몽>에는 정확히 다자연의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자연에는 연애에 참여하는 남녀 모두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야 하지만, <구운몽>에서는 다자에 대한 남성의 사랑은 연인으로 등장하는 다른 여성 인물들에게 인정되고, 여성의 사랑은 오직 한 남성에게만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반쪽짜리 다자연애로 <구운몽>의 사랑을 소개했다. 그러나 <구운몽>을 통해 ‘다자연애’라는 사랑의 한 개념에 접근하여 그것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구운몽>을 소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연애 혹은 결혼에서 독점적인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방한립전>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성애로 보기에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방한립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 생각해 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교양수업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여성의 지위 등에 대한 생각도 함께할 수 있는 작품으로 소개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은 고전소설에도 이렇게 독특한 설정을 가진 작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전소설이 천편일률적이라거나 뻔한 이야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고전소설에 흥미를 갖게 된다면 이 역시 교양수업에서 고전소설을 잘 활용한 예라고 판단하였다.

강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조별 발표는 학생들의 자율로 이뤄졌다.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면 어떠한 해석도 좋다고 강조하였다. 교수자와 같은 작품을 선택해도 좋고, 다른 작품을 선택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했다. 발표의 지침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22) 폴리아모리,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49192&cid=40942&categoryId=31611> (2022.08.16.)

- 발표 시간은 25분 내외이며, 25분 내외로 토론을 진행한다.
- 다른 발표조가 지정토론을 실시한다. 발표조는 발표가 있는 주의 월요일까지 토론조에 발표문을 보내야 하며, 토론조는 10분 정도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토론문을 작성하여 토론을 한다. 나머지 15분은 자유 토론을 실시한다.
- 토론조에 발표문을 늦게 보내면 감점한다.
- 발표의 방식은 수업에서 고전작품에 드러난 사랑의 모습을 분석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교수자가 수업시간에 다루는 작품을 다르게 보거나 다른 인물의 사랑을 다루어도 좋고, 새로운 작품을 선정해도 무방하다.
- 발표 시 고전문학 작품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한계로 지적하는 것은 피한다. 예를 들어, <춘향전>에서 신분의 문제를 거론한다면, 신분의 차이가 사랑의 장애물이 되었다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신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신분제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의 시선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게 되어 작품이 가진 사랑에 대한 모습과 의의를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
- 발표의 형식: 간단한 작품 소개 → 선택한 작품에서 사랑의 모습 제시 → 다른 작품과의 비교 → 외국작품 혹은 현대의 작품과 비교 → 사랑의 모습에 대한 의견, 관점 제시

위와 같은 지침 아래서 각 조는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의 주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지만, 발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교수자와의 상의하면서 발표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미리 발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동시에 발표의 방향이 수업의 의도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발표를 제시시간에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래 인용은 조별 발표를 위해 학생이 보낸 메일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사랑의 모습이 담긴 고전소설 1편과 현대작품 2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전소설은 <소설인규옥선>(〈옥소선〉)이며, 현대작품은 영화 <라라랜드>와 <블루 발렌타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설인규옥선>은 현실적인 제약을 여자주인공이 직접 생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사랑도 함께 쟁취하는 모습에서 <조신전>에 나오는 두 인물과 대비된다고 생각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라라랜드>와 <블루발렌타인>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을 결국 두 주인공이 극복하지 못한 채 각자의 길을 간다는 점에서 <조신전>의 흐름과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조는 <조신전>을 통해 현실의 벽에 부딪힌 사랑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살피기 위해 옥소선 이야기와 외국영화 <라라랜드> 및 <블루발렌타인>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다. 과연 이 작품들이 비교의 대상으로 적절한지, 이러한 방향이 유효한지를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주고 응원해 주는 입장을 보내 발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수업의 의도에 맞게 조율하였다.

대체로는 수업 시간에 제시된 사랑에 대한 관점을 작품만 비껴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발표의 과정에는 다른 고전소설 작품이나 현대 혹은 해외 작품과 비교하는 절차가 있어서 학생들 나름대로 여러 작품을 읽고 고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작품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문학작품을 읽고 사유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사전에 교수자와 주제에 대해 상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강의와 많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별 발표는 진행하였다.

따로 지정토론조를 둔 것은 아무런 토론이 없는 것을 방지하고 지정토론조에서 해당 작품을 읽을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발표를 맡

은 조만큼 작품을 꼼꼼하게 읽고 고민하지는 않겠지만, 지정토론조 역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는 적어도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작품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므로 역시 고전소설을 읽을 필요성이 생긴다.

발표와 토론 이외에 학생들에게 개별 과제를 부과하였다. 그 형태는 조별 발표를 축약한 정도로, 아래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제를 통해 학생은 자신이 꿈꾸는 사랑 혹은 현재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더불어 고전소설을 한 편 이상 읽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20세기 이후의 작품과 비교를 하면서 고전소설의 고민이 다만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에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깨닫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현대 작품(20세기 이후)에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과 한국고전문학 속 사랑의 모습을 비교한다.
- 외국 작품도 무방하다.
- 분량은 A4 2매 내외로 한다.
- 비교의 지점을 잘 발견하는 것이 이 과제의 핵심이다. 두 작품을 왜 비교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논의를 전개한다.
- 결론에서는 반드시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사랑에 대한 생각이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모습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를 서술한다.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가진 사랑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과제의 목적이다.

강의는 이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전소설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사랑을 바라보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한 것은 아니겠지만, 몇몇 학생들은 수업평가를 통해 수업의 의도에 맞게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 교수님, 한 학기동안 수업 잘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룬다기에 흥미가 생겨 수강 신청을 했는데, 고학번들과 함께 조별과제를 한다는 점에서 1학년으로서는 다소 버거운 면이 있었지만 사랑에 대해 생각할 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부끄러워서 다 하지 못한 것에 죄송합니다. 교수님 ㅏ 사랑에 대해 나름대로 잘 알고 있고, 내 가치관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들으며 내 생각만이 옳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평가에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고전소설을 통해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수업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수업의 구체적인 진행은 ‘사랑’이 아닌 다른 감성을 다룰 수도 있고,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작품도 다른 작품들로 교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는 〈춘향전〉을 이도령의 의심에 맞춰서 보도록 하였으나, 사랑에 대한 춘향의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 다뤄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던 춘향이와 이도령의 모습을 군대나 유학, 어학연수 등으로 인해 떨어져 지내야 하는 20대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유비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장르 역시 고전소설에 그치지 않고 구비문학이나 고전시가 작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사랑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로 수업을 구성하고, 작품 역시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고전소설을 읽고, 고전소설이 여전히 지금

을 사는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면 그만큼 고전소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고전소설을 활용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이 글은 고전소설을 활용하여 사랑이라는 감성을 어떻게 교육했는가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이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 하는 질문에 고전소설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질문한 사람이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험을 고전소설 전공자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고전소설을 공부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왜 고전소설을 공부하는 사람은 적은가? 그것은 작품에 대한 재미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어국문학과에서도 고전소설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고전소설은 재미가 없으며 공부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전공수업에서조차 극복하지 못한 편견은 아닐까. 이런 편견의 이유는 고전소설 자체가 갖는 진입장벽이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고전소설을 향유하는 문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전소설은 재미있는 것, 그래서 읽을 만한 것, 현재의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생각하고 느낄 거리를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전소설을 공부하는 우리가 고전소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 노력 가운데 하나는 대학에서의 교양강의는 아닐까. 고전소설 연구자로서 고전소설은 민족 문화의 정수를 담은 소중한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²³⁾, 학생들의 해석을 오독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들과 작품을 재미있

게 읽고 토론하면서 작품 자체를 즐기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이 글에서는 고전소설을 경유하여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토론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미약하나마 이 글이 다른 교수자들에게 교양수업에서 고전소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3) 조현우 역시 “자신이 연구하는 고전소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신성화’하면서, 그 결과 고전소설과 비전공자 사이에 넘기 힘든 높은 장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조현우(2010), 앞의 논문, 76쪽.)고 지적한 바 있다.

참고문헌

- 권순규,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향과 방법」,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7~58쪽.
-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쪽.
-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30쪽.
- 박길희,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과 지기(知己) 그리고 입양에 담긴 의미와 그 위험성」, 『배달말』 61, 배달말학회, 2017, 247~274쪽.
- 박경주, 「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그 방향성 모색」, 『고전문학과교육』 4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5~37쪽.
- 신동훈,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신화의 콘텐츠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59~87쪽.
- 신재홍, 「고전 소설의 재미 찾기」, 『고전문학과 교육』 2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31~59쪽.
- 이상익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1~918쪽.
- 이상일, 「문학교육 제재로서 〈방한림전〉의 가치와 한계 -젠더 일탈과 동성혼 화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1, 45~77쪽.
-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83~121쪽.
- 정선희(A),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미 - 고전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97~426쪽.
- 정선희(B), 「고전소설의 교육과 수용 -문화적 위상의 정립을 위하여」,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129~155쪽.
- 정병헌,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5~26쪽.
- 정출현,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 -전기소설 『금오신화』와 『오유란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2006, 35~63쪽.
-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5~82쪽.

- 최규수, 「대학생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의 몇 가지 키워드」,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89~114쪽.
- 최윤희,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한국 고전 문학과 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 『어문학교육』 44, 한국어문교육학회, 2012, 31~50쪽.
- 최지녀,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同性婚)의 양상과 의미 -〈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립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1, 국문학회, 2020, 29~57쪽.
- 황인순, 김보현, 「대학 교양국어교육의 고전문학 텍스트 활용 연구 -비평적 글 쓰기를 위한 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31~54쪽.
- 에리히 프롬 지음, 정성호 옮김, 『사랑의 기술』, 범우, 2015, 1~264쪽.

ABSTRACT

Emotional Education Using Classical Novel

- Indirect experience of various feelings of love

Yoon, Jeong-ahn

This article presents a method for how to educate the emotion of 'love' using classical novels in liberal arts classes at universities. Classical novels were difficult for modern readers to enjoy due to barriers to entry such as archaic words and Chinese characters, stereotypes of "no fun", and other cultural customs due to differences in the times.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is article proposed to instrumentally deal with classical novels in liberal arts classes at universities. Instrumental handling of classical novels means that they are free to read classical novels and 'misread' them to open a place of thought. This also means that classical novels are consumed in terms of fun. If liberal arts classes are aimed at improving critical thinking rather than conveying knowledge, it is also meaningful to use classical novels in this way, and students may have an opportunity to be interested in classical novels. In order to handle classical novels instrumentally, accessibility must be improved through translation and students must be motivated to read.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ed to students how to read classical novels through the theme of 'love' in liberal arts classes.

In the class, classical novels were used as a tool to look into the emotion of 'love'. This is based on what Erich Fromm calls 'The Art of Loving'. In other words, love is an object to study and learn, and it will be used as a tool to indirectly experience love for students in their 20s through classical novels. The class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What is love?" "The event surrounding love," "Love and deviance," and with the instructor's lecture, students formed a group of presentations and personal assignments. This composition can be carried ou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structor's intention.

Key Words

Classical Novel, Liberal Arts Classes, Emotional Education, Love, Instrumental Treatment, Fun

논문투고일: 2022.10.04.

심사완료일: 2022.11.07.

게재확정일: 2022.11.07.